

재개발 비리가 부른 ‘인재’...처벌은 ‘제자리’

네일 학동 붕괴참사 1주기

현산-하청, 1년째 책임공방만
시·동구, 방지책 탁상행정 지적
“불법 재하도급 권한 이양해야”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붕괴참사가 오는 9일 사고 발생 1주기를 맞는다. 그러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지역민들의 기대와 달리 책임자 처벌은 현재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원·하청업체의 법적공방으로 재판이 지연돼 처벌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참사 초기에 쏟아졌던 개선안 또한 일부만 본회의를 통과 완료됐고, 대부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불·편법 비리로 얼룩진 후진국형 참사의 비극이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중심사 입구역 정류장에 멈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윙54번 시내버스’는 건물 잔해에 통째로 매몰됐으며,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학동 붕괴참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부실한 하부 보강, 해체계획서 미준수, 과도한 살수 등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또,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삭감된 것도 사고 발생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참사 발생 당일 전담팀을 편성한 광주경찰청은 과실책임이 드러난 현산 현장소장을 포함한 5명을 구속하는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사 배경에 자리한 재개발 비리 의혹 분야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아 지금까지 3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기소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광범위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붕괴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학동철거건물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를 하고 있다.

/전남매일 DB

사고 과실 책임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열 한 달째 20여 차례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 서로 “내 탓이 아니다”며 공방만 벌이고 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을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솔 측은 과도한 살수가 원형의 민원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백솔 측은 지시를 받고 철거 작업

을 했으며 살수 작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학동 붕괴참사 초기 여야에서 발의한 ‘학동참사 방지법’ 등은 국회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동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제도들 또한 현장에 적용하기는 부족한 탁상행정

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건축공사장과 해체공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적결 추진단과 공공감리단을 운영 중이지만, 해당 제도들은 지난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한번 더 겪은 후 구제와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동구는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했지만, 2인으로 구성된 인력의 한계 때문에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처벌 수위에 대한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기우식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은 “‘부실공사 적결 추진단’과 같이 공사 현장과 시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던 효과적인 제도도 있긴 했으나, 모든 보완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며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제도들을 검토하면서 동구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의학전문대학 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지자체가 처벌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수난사고 구조훈련 7일 오전 장성군 삼계면 함동저수지에서 열린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의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레스큐튜브를 이용,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동구, 우기 대비 소화천 정비사업 추진

광주시 동구는 여름철 우기 대비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화천 정비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폭이 좁고 석축 보수와 하천 바닥에 대한 준설 공사가 한동안 이뤄지지 않은 동산 소화천이다. 이에 동구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 전

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30%로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단계적으로 관내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해 하천 인근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찬기 기자

광주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정철웅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7일 직선 4기 광주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정철웅 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사진), 부위원장에 임형택 광주대 교수를 확정,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혁신적 포용교육의 밑거름을 그릴 인수위원회 위원 12명과 전문위원 8명, 실무위원 10명 등 모두 30명을 인선했다”면서 “AI, 기후환경 등 광주 미래교육을 위해 당선인 직속 미래교육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철웅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고, 고려대



▲스마트지원분과 등 3개 분과와 당선인 직속 미래교육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나라 기자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화와 환경운동에 투신, 5·18기념재단 감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 조직으로 ▲시민협치분과 ▲정책비전분과 ▲스마트지원분과 등 3개 분과와 당선인 직속 미래교육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나라 기자

조선대 대학원, ‘수화언어학과’ 신설

조선대가 올 2학기에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학과’를 신설한다. 수화언어학과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수화언어학 석사’ 또는 ‘수화언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조선대 수화언어학과는 영·호남지역에서 최초로 개설되는 수어학 학위과정이다. 해당 학과의 신설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수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광주·전남의 지역사회에서 한국수어의 대중화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화언어학과는 언어학적 지식을 갖춘 수어 연구자 및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목표로 ▲언어학개론 ▲한국수어문법론 ▲수어통사론 등 수어의 교육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앞)</p> <p>시세 -> 9억 급매가 -> 6억</p> <p>(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td> </tr> <tr> <td></td> <td>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td> </tr> <tr> <td></td> <td>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7천 (5/12)</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td> </tr> <tr> <td></td> <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td> </tr> <tr> <td></td> <td>동구 운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td> </tr> <tr> <td>전남</td> <td>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5/11)</td> </tr> <tr> <td></td> <td>담양군 향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td> </tr> <tr> <td></td> <td>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td> </tr> <tr> <td></td> <td>목포시 상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td> </tr> <tr> <td>시외</td> <td>충남 서천군(근린주택) ▶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td> </tr> <tr> <td></td> <td>전북 군산시(근린상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 (5/23)</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5/11)		담양군 향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 ▶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 (5/23)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5/11)																											
	담양군 향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 ▶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 (5/23)																											

010-6670-9800